미술학석사 학위논문

현대축산시스템의 잔인성을 모티브로한 도자조형연구

A Study on Formative Ceramic Art Motivated by the Cruelty of the Modern Livestock System

2015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정 동 진

현대축산시스템의 잔인성을 모티브로한 도자조형연구

A Study on Formative Ceramic Art Motivated by the Cruelty of the Modern Livestock System

지도교수 이정석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정 동 진

정동진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목 차

요약 ····· i
표목차 ····· ii
도목차 ····· ii
작품목차 ····· iii

Ⅰ.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Ⅱ. 이론적 배경 ····· 3
1. 현대육류산업의 잔인성 ····· 3
 1) 사육과정 ····· 3
 2) 도축현장 ····· 5
2. 육식주의 시스템의 정당화 ····· 6
3. 이미지 소비사회 ····· 7
4. 작품사례 ····· 9

Ⅲ. 작품제작 및 해설 ····· 15
1. 말 안 듣는 동물들을 위한 도구세트 연작 ····· 15
2. 인식의 시작 ····· 21
3. Head연작 ····· 25
4. 해체된 돼지 ····· 32
5. Display ····· 40

Ⅳ. 결 론 ····· 45

참고문헌 ····· 47
Abstract ····· 49

요 약

제 목 : 현대축산시스템의 잔인성을 모티브로한 도자조형연구

현대의 축산 시스템은 서구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속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한 인류 중심적 성장은 식 재료가 되는 대부분의 동물에게 도축 전까지 좁은 우리에 갇혀 삶을 영위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육류생산과정인 '밀집 동물사육시설(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에서는 과밀한 사육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와 질병발생이 나타난다. 따라서 잔인성을 동반한 오늘날 축산과정의 사육과 도축과정을 알아보고, 이러한 시스템의 유지와 정당화를 위한 움직임을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그리고 현사회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것은 식문화에 나타난 잔인성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 작품사례에선 동시대 미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연구자의 작업과 유사성을 찾고 어떠한 방법으로 상징성과 조형성을 표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대의 육식문화 속에서 잔인성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한 작품연구이다. 따라 오늘날 축산과정에 나타난 잔인성을 모티브(motive)로 하여 시각적 언어인 조형화 작업을 통해 표현한다. 작업과정에서 매체를 자유롭게 뒤섞기도 하고 기존 매체를 관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식 문화에 나타난 잔인성'을 표현함에 있어 동물이 식료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포장되어 우리가 그 진실에 접근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잔인성의 본 모습을 '언어', '유약의 색채효과', '실체의 부재', 'mosaic'라는 연구자가 만든 장치를 이용하여 포장하였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결과물을 통해 향후 연구자의 작업에서 '잔인성'과 '포장'이란 개념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고찰해보고 매체가 가진 특성을 살려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본 연구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현대 미술을 하는데 있어 끊임없는 변화를 인지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현시대의 풍경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려는 자세와 논리로 현대미술의 본질적 속성에 근접하고자한다.

표 목 차

[표 1] 작품 1, 2, 3_ 소성데이터 ····· 61
[표 2] 파손율을 낮추기 위한 임시 받침과 적용 ····· 2
[표 3] 작품 4 소성데이터 ····· 2
[표 4] 작품 5 소성데이터 ····· 6
[표 5] 작품 6, 7 소성데이터 ····· 6
[표 6] 작품 5, 6, 7 유약 및 시유방법 ····· 72
[표 7] 작품 5 시유 층 ····· 2
[표 8] 작품 6, 7 시유 층 ····· 2
[표 9] fiber glass 특성 ····· 43
[표 10] FRP작업 단면도 ····· 4
[표 11] 작품 8 소성데이터 ····· 6
[표 12] 기본 6색과 혼합하여 만든 30색 ····· 68

도 목 차

[도 1] 부리자르기 ····· 4
[도 2] 동물의 도축장면 ····· 5
[도 3] 데미안허스트, <this little piggy went to market, this little piggy stayed at home> ····· 9
[도 4] 데미안허스트, <for the love of god> ····· 0· 1
[도 5] 한효석, <unmasked exposing what lies beneath18> ····· 1···· 1
[도 6] 나와 코헤이, <pixCell-double_deer#6> ····· 2···· 1
[도 7] 장지아, <도축된 소 한 마리의 피로 만든 벽돌> ····· 3 1
[도 8] 장지아, <아름다운 도구들 시리즈 2>, c 프린트 ····· 4 1
[도 9] 장지아, <아름다운 도구들 시리즈 2>, 혼합매체 ····· 4 1
[도 10] 유약에 따른 동의 발색 ····· 2
[도 11] 가압성형과정 ····· 2
[도 12] 스티로폼 조각과정 ····· 2
[도 13] 돼지부위별 분류 ····· 3
[도 14] FRP작업 ····· 3
[도 15] 도판건조과정 ····· 5

[도 16] 소성된 타일 ····· 53
[도 17] 분류된 타일 ····· 53
[도 18] 분류된 타일2 ····· 53
[도 19] <해체된 돼지> 설치장면 ····· 93
[도 20] 갤러리 평면도 ····· 11
[도 21] space A ····· 14
[도 22] space B ····· 14
[도 23] 설치계획 ····· 21
[도 24] space A 전시전경1 ····· 34
[도 25] space A 전시전경2 ····· 34
[도 26] space A 전시전경3 ····· 34
[도 27] space B 전시전경 ····· 44

작품목차

[작품 1] <말 안 듣는 동물들을 위한 도구세트Ⅱ> ····· 81
[작품 2] <말 안 듣는 동물들을 위한 도구세트Ⅲ> ····· 91
[작품 3] <말 안 듣는 동물들을 위한 도구세트Ⅳ> ····· 02
[작품 4] <인식의 시작> ····· 42
[작품 5] <Head Ⅰ> ····· 02
[작품 6] <HeadⅡ> ····· 03
[작품 7] <HeadⅢ> ····· 13
[작품 8] <해체된 돼지> ····· 04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축산시스템은 남북전쟁 이후 약 25년 동안의 미국의 산업 혁명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신속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한 인류 중심적 성장은 인간에게는 과도한 육류 섭취로 인한 풍요의 질병을, 그리고 동물에게는 밀집된 사육시설의 좁은 우리에 갇혀 도축 전까지 삶을 영위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육류생산과정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밀집 동물사육시설(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1]'에서 과밀한 사육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와 질병발생이다. 식 재료가 되는 대다수의 동물들은 식품을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와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밀집 사육시설'에서 사육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육시설은 잔인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움직임이 제한된 사육환경에서는 동물들이 질병에 취약해지고 타고난 행동을 하지 못해 정신병적 증상이 발견된다. 또한 사육의 편의를 위해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등 이곳에서 동물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윤리적이며 잔인성을 동반하고 있음에도 육류산업은 비가시성을 유지하며 시스템을 정당화 하는 여러 과정과 폭력적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커져만 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식 육류산업의 잔인성이 포장을 통하여 식재료로 변모되어 잔인성이 감춰지는 것처럼, '언어적 유희'와'화려한 색체', 'mosaic'를 통해 대상을 미화시켜 시각적으로 잔인하지 않게 표현하고자 한다.

작품제작에서 이러한 미화과정은 대상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잔인성과의 거리를 멀게 조장하는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론 이러한 '포장'을 통해 작품과 수신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문제를 제기하며 드러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1) 미국 환경부가 만든 이 말은 CAFO라는 약자로 자주 쓰이며 '관행축산'이라는 교묘하게 합리화된 말로 부르기도 하고 '밀식 사육', '밀집사육'또는 '공장식사육'이라고도 부른다.. 멜라니 조이. "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대의 육식문화 속에서 잔인성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한 작품연구이다. 따라서 축산과정에 나타난 잔인성을 모티브(motive)로 하여 시각적 언어인 '조형화 작업'을 통해 표현하는 것으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잔인성을 포함한 축산과정의 전반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정당화 과정, 현시대의 특성들에 관하여 국내·외 학술자료와 관련 서적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자의 작품은 현대도예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보단 입체미술과 도예라는 두 장르의 융합에 바탕에 두고 있다. 보여주는 형식과 내용 역시 장르간의 파괴와 해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완성되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작품과 유사성을 가진 현대미술작품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자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자 하였다.

본 작품연구의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작품은 설치미술의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전시공간의 선정 또한 작품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히 이루어졌다.

둘째, 본 연구는 육식산업 전반에 나타난 잔인성을 바탕에 두고 있으며 형태적 대상은 돼지로 한정 하였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이며 돼지가 도축 후 갖는 웃는듯한 표정은 본 전시를 구성하는 '잔인성'과 '포장'이라는 이미지에 적절하다 판단하였다.

셋째,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도자공예 적 재료인 점토(clay)와 유약(glaze)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FRP(fiber reinforced plastics)와 스티로폼(styrofoam), 스테인리스(stainless steel) 등 여러 매체를 혼합하며 다양한 재료와 제작방식을 통해 결과물을 얻고자 하였다.

넷째, 앞서 말했듯이 연구자의 작품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발전되어왔다. 표현형식 면에서도 다원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의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모조주의'와 '설치'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오늘날 사회에는 대량화, 소비화구조가 만연하게 퍼져 있다. 이는 우리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물질의 범람으로 인하여 존엄성을 지닌 생명 역시 하나의 기계부품과도 같은,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진보는 현대사회의 산업구조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로인하여 인간은 주체성과 정신적, 정서적인 면까지 위협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산업사회는 인간의 사회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산업혁명과 같이 성장한 현대의 육류생산시스템엔 많은 부작용이 뒤따른다. 그 중 하나는 '밀집 동물사육시설'에서 과밀한 사육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와 질병발생이다. 이번 장에선 현대식 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인성을 사육과 도축과정을 통해 알아보겠다. 또한 이러한 잔인한 시스템을 정당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고 현사회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이것은 현재의 식문화에 나타난 잔인성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동시대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연구자의 작업과 유사성을 발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상징성과 조형성을 표현하였는지 살펴본다.

1. 현대육류산업의 잔인성

1) 사육과정

(1) 돼지

대부분의 돼지들은 전 생애(6개월)를 밀집사육시설에 갇혀 지내며 도축되기 전까지 한번도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한다. 새끼 돼지들은 태어나자마자 마취도 없이 거세되고 꼬리가 절단된다. 꼬리는 뭉툭한 펜치로 끊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절단면이 짓눌려 출혈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절단하는 이유는 사육장에서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타고난 욕구가 좌절되어 돼지들이 신경증적인 행동을 보이며 서로의 꼬리를 물어서 끊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흡사한 이 증상을 업계에선 '돼지스트레스증후군PPS(porcine stress syndrome)'이라 부르며 호흡곤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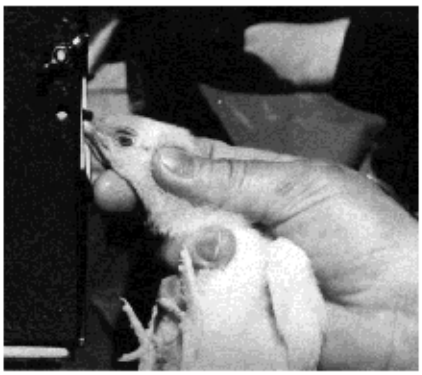
직, 불안, 피부 발진, 급사 등의 현상도 일어난다. 갇힌 채 태어난 새끼 돼지들은 2~3주 동안 어미의 젖을 먹은 후 남은 생애를 다른 우리나 축사에서 보내게 된다.

(2) 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세, 낙인과 제각[2] 을 모두 마취 없이 겪어내야 한다. 돈육이나 가금육 업계와 달리 비용절감을 위해 목초지를 가진 개별 목장주들과 계약해 6개월까지는 송아지를 방목하기도 한다. 젖을 뗀 후 예비우리에서 두어 달을 지내며 갇혀있는 생활과 여물통에서 먹이를 먹는 일에 익숙해지고 단백질 및 지방 보조제로 만들어진 사료에 길들여진다. 그 후 나머지 생애는 비육장[3]에서 보내게 된다.

(3) 닭

오늘날 육계는 40일도 걸리지 않아 2kg에 도달한다고 한다. 30년 전 2kg까지 되는데 80일 이상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2배 이상 빨라졌다. 그 결과 국내에선 33일 만에 농장에서 닭을 출하한다. 생산성만을 고려한 품종 개량으로 면연력이 떨어지는 품종을 만들었고, 유전자를 단일화해 수만 마리를 한꺼번에 사육하는 농장 안에서 개체간의 질병 전파를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 1] 부리자르기

또한, 비정상적인 성장으로 다리장애, 기립불능, 심장병, 급사증(sudden death syndrome) 등이 발생하여 살아있는 동안 고통을 겪는다. 그 뿐만 아니라 타고난 행동 욕구를 전혀 채울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서로 깃털을 쪼고, 심지어 쪼아 죽이고 먹는 등 스트레스성이나 정신병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마취도 하지 않고 [도 1]과 같이 부리 앞쪽을 끊거나 갈아버린다. 부리 자르기로 알려진 이 과정은 감염이나 신경종양을 일으킬 뿐 아니라, 부리가 너무 많이 갈린 병아리는 물을 마시고 모이를 먹을 수 없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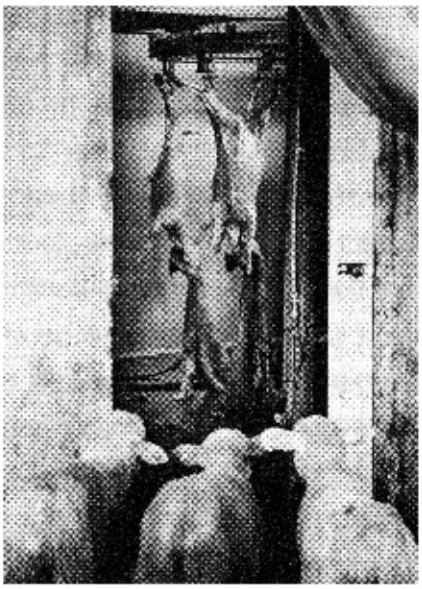
2) 소나 염소의 뿔을 없앰. 가축은 뿔을 없애면 성질이 순해지고 안전함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3) (肥育場. 고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 가축의 운동을 제한하고 특수사료를 주어 단기간에 살이 찌도록 하는 곳). 피터 싱어. "동물해방"

2) 도축현장

폴매카트니(Paul McCartney)는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육식을 할 수 없을 거라 믿었다.

동물의 도축과정엔 잔인성과 폭력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인도적 도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동물들이 죽음을 고통 없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동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지만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흔히 차이가 생긴다.[5]



[도 2] 동물의 도축장면

[도 2]는 동물의 도축장면이다. 도살당할 동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연히 도살이 시행될 정도로 도축장에는 윤리적 배려가 없다.[6] 아래「워싱턴 포스트」기자가 미국의 동해안에 위치한 도축장의 모습에 대해 기술한 내용에서 도축과정과 그 잔인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7]

돼지고기 생산 과정은 고도로 자동화된 최첨단 기술이 사용되는 공장에서 밀폐된 플라스틱으로 깔끔하게 포장된, 왁게 썰어놓은 베이컨과 햄이 컨베이어 벨트로부터 굴러 떨어지면서 끝난다. 하지만 그 시작은 공장 뒤쪽에 위치한, 악취가 나는 질퍽한 피투성이의 돼지우리다.

도축의 과정은 비명을 질러대는 돼지가 우리에서 나무로 된 두꺼운 관자위로 떠밀려가는 데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일꾼들은 돼지의 머리에 전기 쇼크를 주어 기절시킨다. 그들이 쇼크로 넘어지면 일꾼들은 서둘러 돼지를 컨베이어 벨트에 거꾸로 매단다. 이때 그들의 뒷다리를 금속 줌쇠로 조인다. 간혹 기절한 돼지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서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일꾼들은 기어서 돼지에게 다가가 그들이 좁은 구역을 거칠게 뛰어다니기 전에 다리를 금속 줌쇠에 다시 끌어 올려야 한다. 일꾼들은 기절하거나 여전히 꿈틀거리는 돼지들의 경정맥을 칼로 찔러 대부분의 피가 몸에서 빠져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도축을 한다. 다음 단계로 도축된 돼지들은 유혈이 낭자한 도축장으로부터 펄펄 끓는 단지(pot)로 옮겨지게 된다. [8]

4) 멜라니 조이, (2011),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노순옥 역), 모멘토, pp. 72.
5) 피터 싱어, (2012), "동물해방", (김성한 역), 연암서가, pp. 265.
6) 최훈, (2012), "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사월의 책, pp. 169.
7) 피터 싱어, (2012), "동물해방", (김성한 역), 연암서가, pp. 265.
8) 위에 책, pp. 265-266.

2. 육식주의 시스템의정당화

우리가 속한 사회의 통념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 그들은 사회의 모든 부문을 점거하고 있어서, 어디를 가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특정체제의 기능 노릇을 하는 기관들과 그 대변자들로 두루 이루어진다. 한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으면 의료계에서 교육계에 이르기 까지 사회의 주요 기관과 제도가 모두 그것을 받쳐 주게 된다. 정보를 얻는 주요 원천인 뉴스 미디어 또한 생략과 미미한 보도를 통해 식육산업의 비가시성을 지켜주고 있다.[9] 또한 육류생산의 잔인성은 용어교정을 통해서도 그 연결고리가 차단되고 포장되어진다.

가금류 수의사이자 미시시피 주립대학의 임상 지도교수인 티모시 커밍스(Timothy Cummings)는 가금육 생산 업자를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제 언론 등 미디어에 능통하고 언어의 힘을 잘 아는 동물보호운동가들과 맞서야 할 때라면서 "누구든 문제를 정의 하는 사람이 논쟁을 지배한다."라고 말했다. 커밍스는 예컨대 닭의 '부리 자르기(debeaking)'도 '부리조절(beak conditioning)' 로 용어를 바꾸는게 좋다고 했다. 부리 자르기가 닭의 모습을 흉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른바 '스파트리트먼트'류의 미용 및 건강요법처럼 보이게 하자는 얘기다.[10]

업계사람들은 가축이 고기로 변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말들이 너무 정확하고 구체적이면 소비자들이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일찍이 1922년에 텍사스 주의 염소 및 양 사육업자협회에서는 '염소 고기'라는 구체적인 이름 대신'셰번(chevon)'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분쇄한 소, 돼지 토막, 양의 다리를 먹는다고 말하지 않는다.……비프(beef), 포크(pork), 머튼(mutton)이라는 명칭이 훨씬 더 식욕을 돋운다."라는 주장이다. 한편 예전에 전국목축업자 쇠고기 협회는 회원들에게 '도살(slaughtering)' 이라는 단어에는 사람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니 그 대신 '가공(process)'이나 '수확(harvest)' 같은 단어를 쓰라고 조언한 바 있다.[11]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발견된다. 오상집 강원대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살 처분 이란 말의 어감이 너무 좋지 않은데 이 용어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수급조절이나 도태 등으로 순화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열린 육우자조금 관련회의에서도 육우 소비확대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육우라는 이름을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표현을 써

9) 멜라니 조이, (2011),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노순옥 역), 모멘토, pp. 133-134
10) 위에 책, pp. 62, 재인용
11) 위에 책, pp. 63, 재인용

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축산물의 이름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미국 등에서는 비프(beef), 포크(pork), 브로일러(broiler·육용계) 같은 용어를 사용해 가축이나 동물보다는 식품으로서의 고기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만큼 반드시 육우라는 직접적인 이름은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12)]

3. 이미지 소비사회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이미지생산을 들 수 있다. 모든 정보 전달과 가치 판단이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미지 소비문화는 이 사회를 정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신속하게 자리 잡았다. 이러한 문화의 확산은 인식의 과정에서 정보의 전달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미지의 특성에 기인하며 많은 장점만큼 이나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우선 시각적, 감각적 이미지 중심의 문화는 소비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매일 반복되는 동일한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들의 가치 판단을 마비시킨다.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구성된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광고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던 정보는 다른 가치 판단의 시간을 주지 않는다. 가치 판단이란 순수하게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이미지 제작자들의 의도에 이끌려가게 된다. 그로인해 소비자들은 똑같은 관심, 똑같은 식욕을 갖게 되고, 의식 없는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현대의 대중은 '이미지의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지 미학적 판단 기준을 상실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선과 악, 기쁨과 슬픔의 감각 자체가 마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디어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이미지들은 수용자들로 하여금 그 이미지들이 전달하는 가치들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 뒤랑의 표현처럼 이제 우리는 모든 이미지들을 똑같은 '죽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소말리아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나, 보스니아 전쟁의 '인종 청소', 또는 십자가를 지고 몽마르트르 성당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파리 대주교의 모습을 보는 것은 똑같은 '죽은 눈'이다. 이러한 상상적 창조성의 마비와, 방관자적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들

12) 부정적인 축산용어 순화해야, <농민신문>, 2014/05/16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32059&subMenu=articletotal 2014/05/17 22:30

의 평준화는 더욱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질베르 뒤랑. 『상상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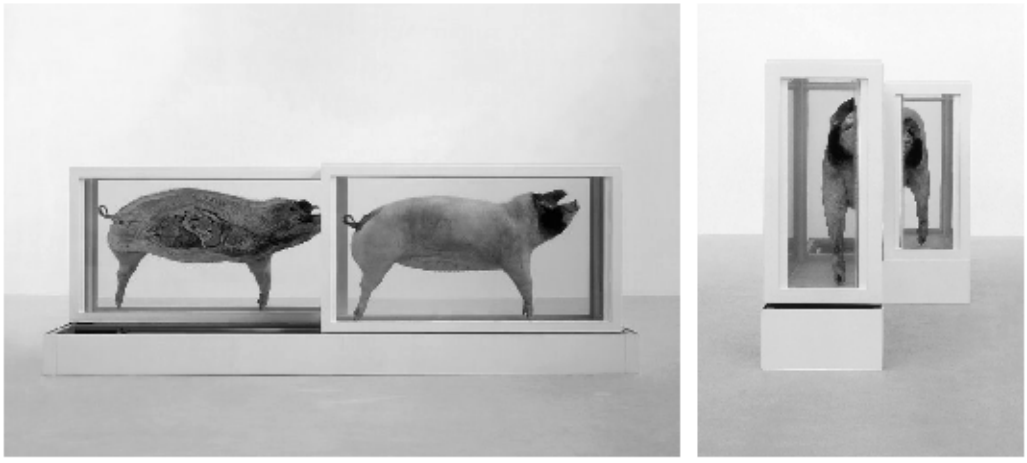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력의 도구이자 결과인 이미지가 역으로 상상력을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현시대에 만연한 자본주의와 맞물려 식재료가 되는 대부분의 동물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본성을 잃게 되었고 시장의 상품으로서 재화와의 교환가치에 의해 존재케 되었다. 정보의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미지가 집단의 가치를 균등화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13]

13) 홍명희. (2005).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 pp. 82-92.

4. 작품사례

현대미술은 온갖 양식과 기술, 갖가지 재료와 주제, 수없이 다양한 형식과 제작의도, 나아가 전혀 다른 미학적 전통이 각축을 벌이는 거대한 경기장과도 같다. 오늘날 관객들은 자신이 극과 극을 오가는 다양한 오브제와 이미지 사이에 서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14] 작품사례에선 동시대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에서 연구자의 작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작품들의 관찰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상징성과 조형성을 표현하였는지 살펴본다.

1) 데미언 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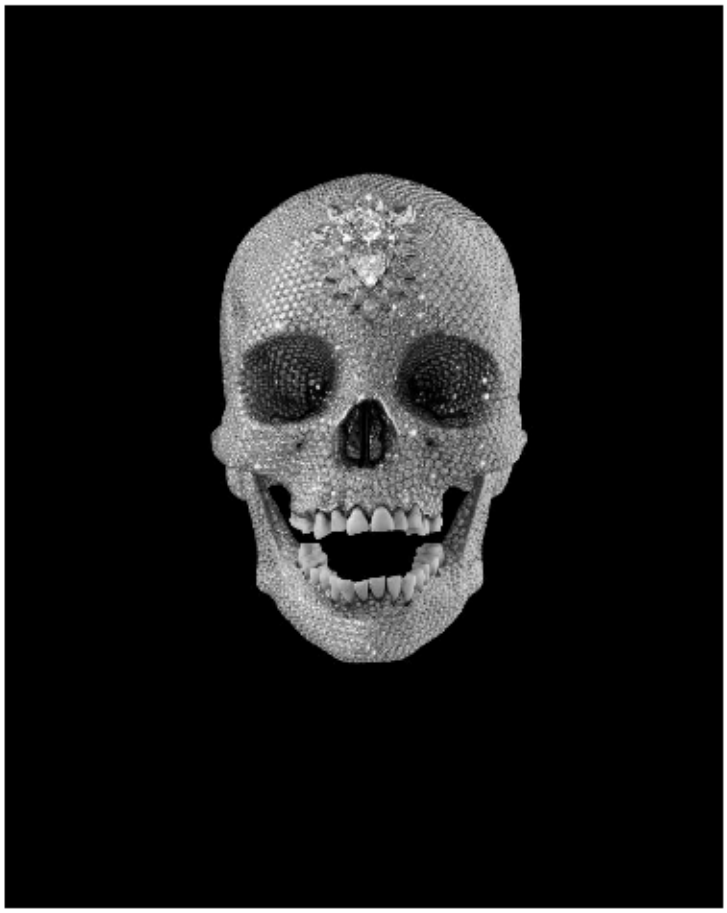


[도 3] 데미언 허스트,
<this little piggy went to market, this little piggy stayed at home>, 1996

허스트의 예술은 인간 심리의 모순된 욕망을 다양하게 재현해왔다. 그 바탕에는 일관되게 죽음에 대한 욕망이 깔려 있다. 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소재를 가져와 냉소적인 시각으로 죽음을 전달하고 있다.[15]

<마켓으로 간 돼지, 집에 있는 작은 돼지>는 포름알데히드 상자에 담긴 절개되어 있는 돼지가 전자모터로 합체와 분리를 반복한다.

14)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2011), "테마 현대미술노트", (문혜진 역), 두성북스, pp. 14.
15) 심은록, (2013),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10", 아트북스, pp. 91-92.



[도 4] 데미언 허스트, <for the love of god>, 2007

<신의 사랑을 위하여>는 5,000만 파운드(약 940억 원)에 팔렸다. 실제 인간의 두개골에 백금 틀을 씌우고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작품이었다. 순 제작비만 1,200만 파운드(약 220억 원)가 들어간 이 작품을 통해 허스트는 "죽음의 상징인 해골 위에 사치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를 덮어 욕망과 죽음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자"했다.[16]

16) 심은록. (2013).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10". 아트북스. pp. 95.

2) 한효석

[도 5] 한효석, <unmasked exposing what lies beneath18>, 2180x1480mm, oil on canvas, 2011-2013

한효석은 고깃덩어리로 얼굴을 그리거나 직접 그 고기를 제공하는 생물들을 캐스팅 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도륙된 얼굴 시리즈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정면을 응시한다. 인간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그의 작업은 얼굴의 살가죽을 벗겨 살과 근육조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인간이란 동물의 육체적, 물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또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5mm 두께의 껍질을 벗겨내면 다 똑같은 정육점의 육질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다.

3) 나와 코헤이

[도 6] 나와 코헤이, <pixcell-double deer#6>, 2297x1900x1600mm, mixed media, photo by Seiji Toyonaga (sandwich graphic), 2012

나와 코헤이의 픽셀연작 대표작인 pixcell-deer시리즈는 박제된 동물의 표면에 투명 크리스탈 구슬을 뒤덮어 만든 beads연작들의 대표작이다.

박제된 동물과 크리스탈 구슬의 합성은 그것이 지닌 원래의 색과 질감과 형태를 완전히 해체시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와 같다. 또한 크고 작은 구슬들은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여 색감과 형태를 극대화시켜 감상자들을 매혹시킨다. 이러한 비즈의 효과는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듯이 보인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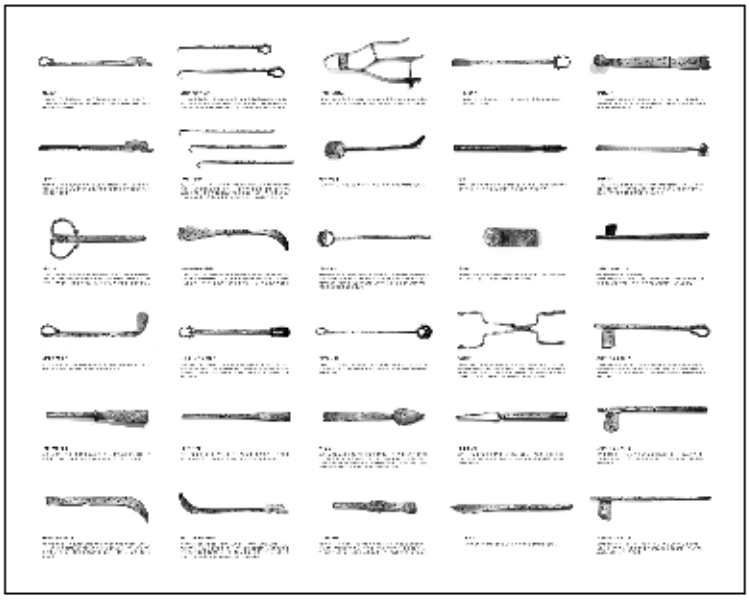
4) 장지아

[도 7] 장지아, <도축된 소 한 마리의 피로 만든 벽돌>, 1200x300x700mm, 설치, 2012

장지아는 사회적 통념이나 규율, 금기를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현대인과 세상의 시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이다.

소의 피로 만든 벽돌, 작은 도형 그리고 장난감과 같은 모형들과 이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은 생명의 원천인 '피'가 사물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18]

17) 아라리오. http://www.arariobeijing.com/. (2014/06/08 21:20)
18) 네오룩. "장지아". http://www.neolook.com/. (2014/06/18 22:30)



[도 8] 장지아, <아름다운 도구들 시리즈 2>,
1200x1500mm, c 프린트, 2012

[도 9] 장지아 <아름다운 도구들 시리즈 2>,
1100x700x1050mm, 혼합매체, 2012

<아름다운 도구Ⅱ>는 '고문도구'들과 그 사용법을 설명하는 패널로 구성된다. 작가는 19세기 말 중국에서 사용된 외과용 수술도구들을 수집하고 '고문'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텍스트로 부여했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규범과 그것이 억압하는 개인의 상상력을 지적한다.[19]

19) 네오룩. "장지아". http://www.neolook.com/. (2014/06/18 22:30)

Ⅲ. 작품제작 및 해설

제작방법과 그 의미가 유사하거나 같은 작품들을 묶어 총 8점의 작품을 1, 2, 3, 4장으로 분류해 설명한다.

1장에선 [작품 1], [작품 2]와 [작품 3]을 2장에선 [작품 4]를 3장에선 [작품 5], [작품 6]과 [작품 7]을 4장에선 [작품 8]에 대해 설명한다.

각 장에서 설명은 성형 및 제작과정, 소성, 유약 및 시유방법, 작품해설 순으로 진행한다.

1. 말 안 듣는 동물들을 위한 도구세트 연작

[작품 1] 말 안 듣는 동물들을 위한 도구세트Ⅱ
[작품 2] 말 안 듣는 동물들을 위한 도구세트Ⅲ
[작품 3] 말 안 듣는 동물들을 위한 도구세트Ⅳ

1) 성형과정

제작에 사용된 소지는 렁컨사의 1차 점토와 규회석(wollastonite)등이 포함된 석기(stone ware)질 점토로 크기와 부피가 있는 조형작업을 하기에 용이하고 소성 시 수축률 또한 다른 점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건조과정에서 뒤틀림이 적다. 작업과정은 초벌 전 손 성형과 초벌 후 전동공구를 이용해 진행되었다.

초벌소성 전 성형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판기를 이용 하여 두께 25mm의 판을 만든다. 판의 넓이는 수축을 감안하여 원하는 크기보다 크게 만든다. 절개할 모양을 점토 판 위에 그려 넣은 후, 건조가 되기 전에 끝이 길고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그려진 실루엣을 따라 점토판을 절개한 다음 평평한 판에서 천천히 건조 시켰다.

초벌소성 후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절삭과 연마 과정을 통해 도판의 규격과 면을 보다 정확하게 맞춰주었다. 소성 후 소결된 점토를 디스크로 절삭 시 기물에 충분히 수분을 가해주므로 보다 깨끗한 절삭면을 얻을 수 있으며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억제할 수 있다. 작업이 완료된 기물은 깨끗하게 세척함으로 연마 시 발생한 잔여물을 제거해준다. 이러한 분진과 같은 잔여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시유 할 경우

유약말림(crowling) 과 유면에 핀홀(pinhole)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작업에 사용된 공구는 4인치 핸드그라인더와 석재용 절삭용 디스크와 연마석이다.

2) 소성

소성은 3~4차로 이루어졌다.

1차 소성은 1210℃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1차 소성은 800~900℃에 이루어지나 본 연구에선 1차 소성 후 연마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형태에 근접한 크기를 얻기 위해 2차 소성온도에 상응하는 온도에서 1차 소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2차 소성전과 후의 기물의 크기나 모양의 변형을 최소할 수 있다.

2차 소성 온도는 1250℃이다. 초벌을 고화도로 하였으나 관의 두께와 크기를 고려하여 소성 시간을 길게 잡아 주어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파손에 대비하였다.

3차 소성온도는 1050℃이다.

4차 소성의 소성시간은 3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3차 소성 후 발색이 매끄럽지 못한 작업에 한하여 다시 이루어졌다.

[표 1] 작품 1, 2, 3 소성데이터

3) 유약 및 시유방법

시유방법은 스프레이분사로 1차 소성 후 연마작업이 완료된 기물에 고화도 흑매트 유약을 시유 하였다. 흑매트 유약은 2차 소성 후 시유할 terra sigillate를 기물에 점착시키는 역할을 하며 terra sigillate 색상을 보다 무겁고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사용된 terra sigillate는 redartclay와 red안료를 10:1의 비율로 혼합해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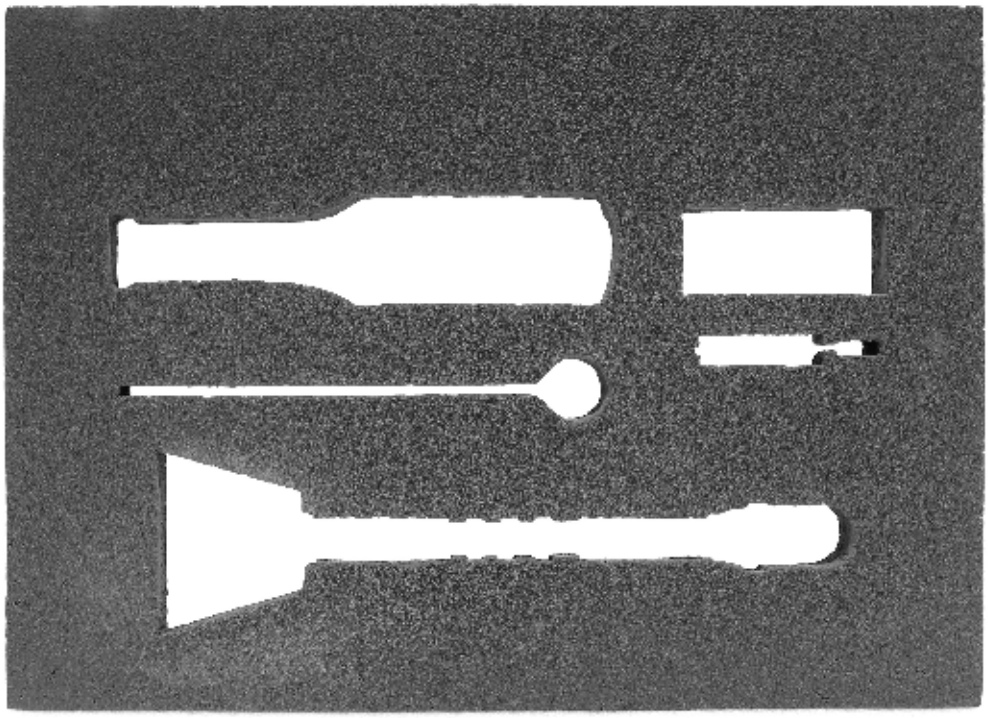
2차 소성 후 terra sigillate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시유하였다.

4) 작품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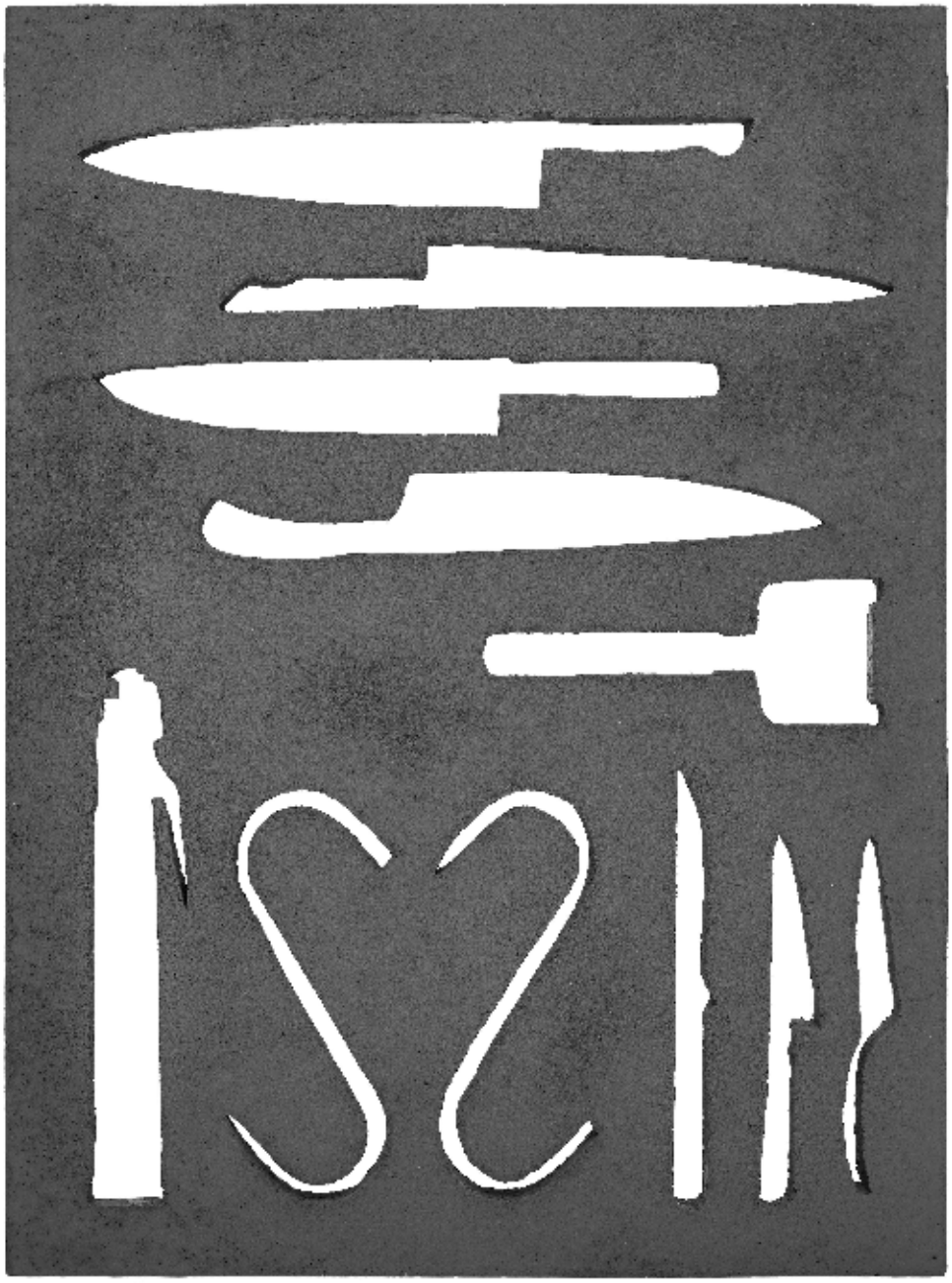
<말 안 듣는 동물들을 위한 도구세트> 시리즈는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구 수납방법에서 모티브를 얻어 작업을 시작 하게 되었다.

각종 공구들은 도살할 때 사용되는 도구와 조리할 때 사용하는 조리도구들로 대체된다. 이러한 도구들의 이미지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정해진 사각형 틀 안에서 새롭게 세트화 된다. 이때 도구들은 작품상에서 잔인성과 연관해 상징적의미로서 라인으로만 존재 하지만 도구들의 실제 크기에 가깝게 형성된 라인과 붉은 색채는 도구들의 부재를 알리기 보단 실제 그 자체 보다 더 실제 같으려고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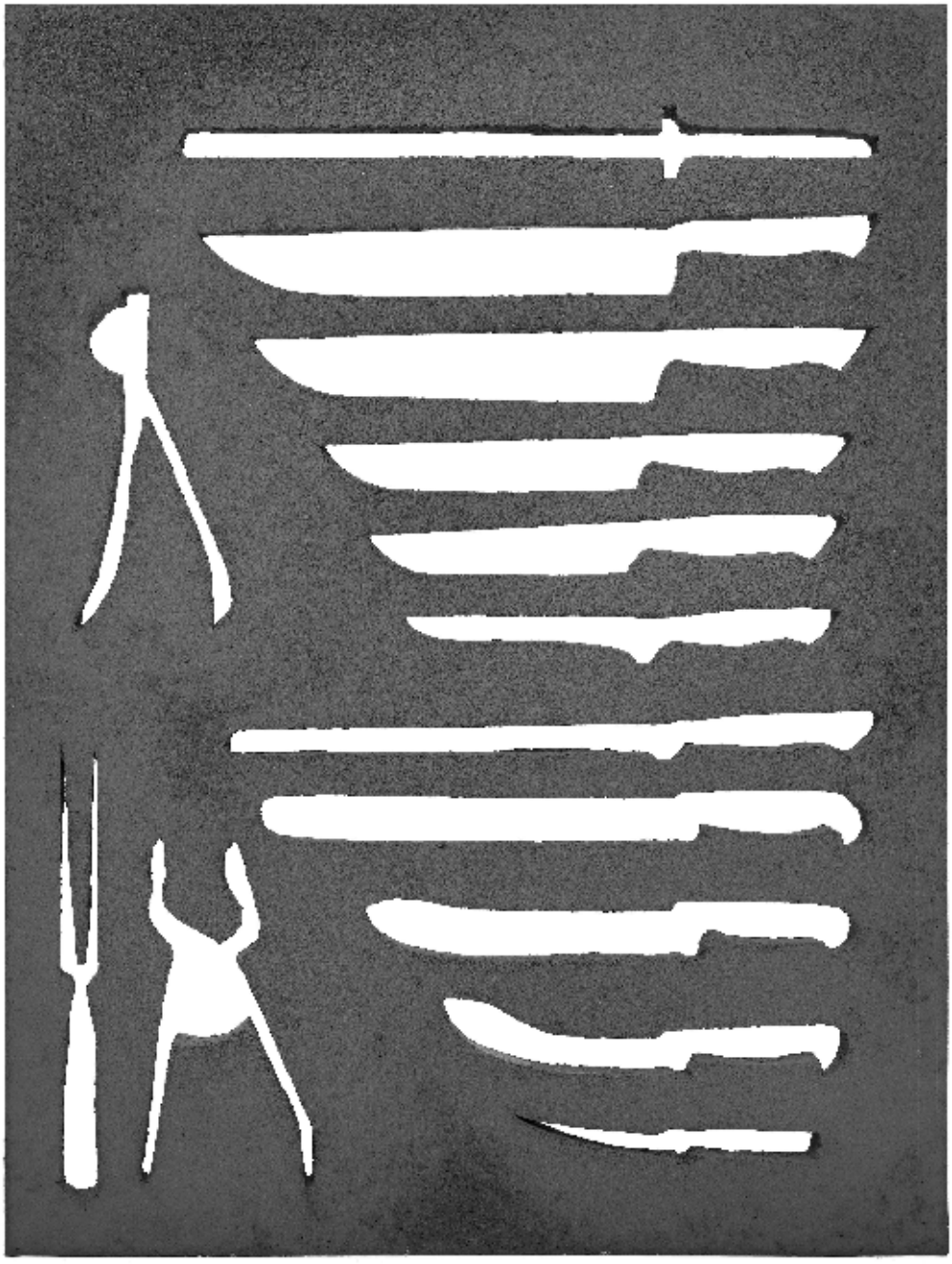
본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로 형과 색, 질감만큼이나 작품의 제목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 제목 '말 안 듣는 동물 들을 위한 도구세트'를 포장 없이 표현한다면 '말 안 듣는 동물 들을 다루기 위한 도구 세트'정도가 된다. 여기서 도구들은 실 사용자인 사람들을 위해 존재 하지만 가공을 거친 제목에서 도구들은 동물들을 위해 존재 하는 것처럼 비춰지며 혼란을 야기 시킨다.



[작품 1] <말 안 듣는 동물들을 위한 도구세트Ⅱ>,
415 x 300 x 25mm, stoneware, 2014



[작품 2] <말 안 듣는 동물들을 위한 도구세트Ⅲ>,
450 x 600 x 25mm, stoneware, 2014



[작품 3] <말 안 듣는 동물들을 위한 도구세트Ⅳ>,
450 x 600 x 25mm, stoneware, 2014

2. 인식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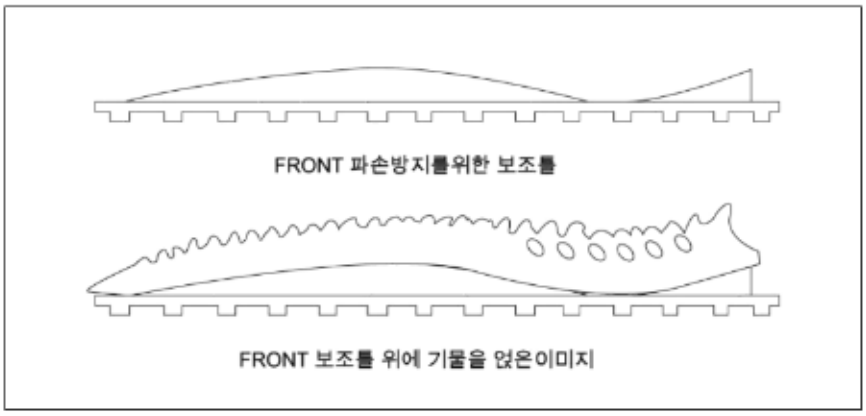
[작품 4] 인식의 시작

1) 성형과정

사용된 소지는 석기질 점토이고 성형은 1차 소성을 전, 후로 하여 손 성형과 전동공구를 이용한 방법으로 진행 되었다.

소성 전 성형과정은 다음과 같다.

형태적 특성상 파손위험이 있는 점토 작업을 할 때는 성형이 완료된 후 가마까지의 재임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본 작업은 길이가 1100cm 정도로 가늘고 긴 형태이다. 성형과 소성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과 뒤틀림을 막기 위해 원형 아랫부분에 받쳘 임시 받침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었다.



[표 2] 파손율을 낮추기 위한 임시 받침과 적용

임시받침은 곧 작품 원형의 실루엣과 이어진다. 작품의 제작엔 조소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점토를 깎고 붙이는 과정을 반복하며 형태를 만들어 갔다. 외형이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게 되면 끝이 둥근 도구를 이용해 속을 파는 작업이 이뤄졌다.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며 소성 전 성형 작업을 마쳤다.

1차 소성 후 성형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소성 후 임시받침은 핸드그라인더(4인치)에 석재 절삭용 디스크를 이용하여 제거해 준다. 제거의 용이성을 위해 소성 전 성형과정에서 틀과 원형은 슬립을 이용해 가볍게 점착시킨 상태이다. 또한 핸드그라인더와 보다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에어다이그라인더(Ø6)를 이용해 조각과 연마의 과정을 거

쳐 외형을 완성시킨다.

2) 소성

소성은 1차와 2차로 이뤄졌고 1차 소성에서 1230℃로 21시간동안 천천히 온도를 높여줌으로 파손율을 낮추어주었고 2차 소성온도는 1050℃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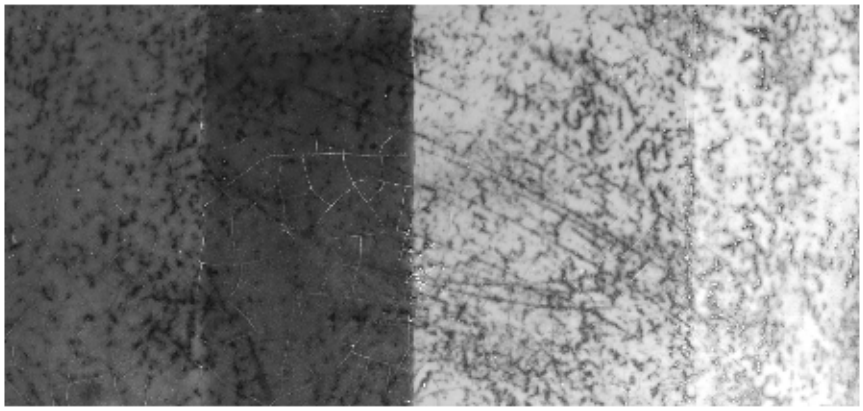
[표 3] 작품 4 소성데이터

3) 유약 및 시유방법

시유 전 기물의 베이스에 붓을 이용해 동을 전체적으로 칠해준다. 다음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유약을 분사해주었다. 사용된 유약은 Duncan 사의 yellow 중화도 유약이다. 유약은 적당량의 물을 혼합하여 스프레이 분사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분사 시 유의할 점은 얇게 여러 번 분사하는 것이다. 분사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 유약이 건조된 것을 확인하며 다음 분사를 진행한다. 그렇지 않고 분사과정을 진행 하면 유약이 흘러내려 눈물 자국이 형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 되지 않는다.

동은 소성 시 녹색을 띄는데 [도 10]을 보면 위에 얹혀 지는 유약에 따라 다른 발색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도 10] 유약에 따른 동의 발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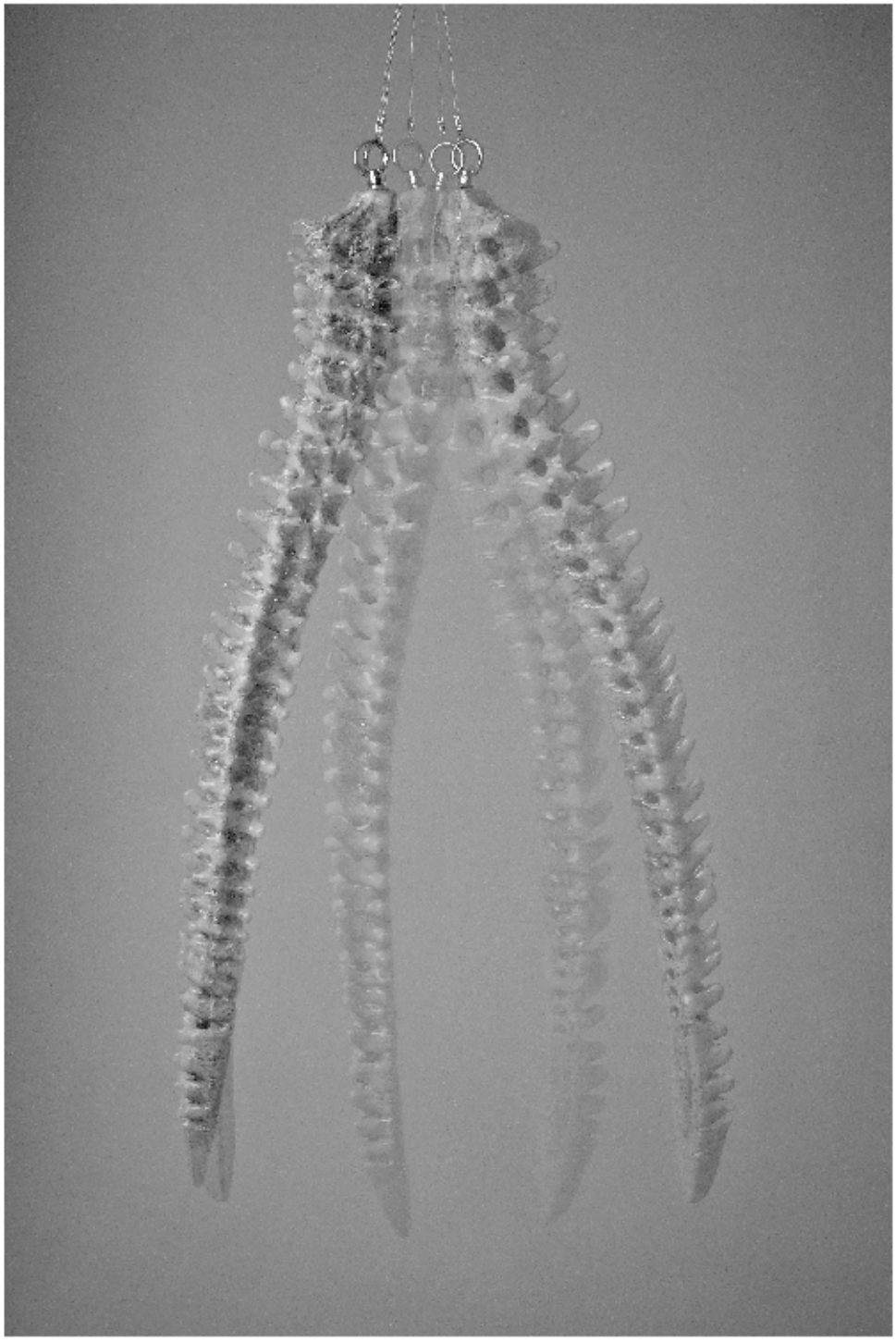
4) 작품해설

<인식의 시작>은 논문 주제에 큰 영향을 끼친 경험을 바탕에 두고 제작되었다. 그 경험은 음식점에서 이뤄졌다. 연구자는 뼈 틈새에 있는 고기를 덜어내는 행위에서 동물 뼈의 생김새가 사람의 그것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식 문화와 관련한 인간의 잔인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러한 풍경은 사회전반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반복되는 이미지 속에 사람들은 잔인성을 인지하는 감각자체가 마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해부학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동물과 인간의 척추일부를 보고 그것을 구분해 내긴 쉽지 않다.

작품의 형태는 사람의 척추형태에서 변형을 주었다. 길고 뾰족한 형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적당한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색채는 Yellow와 Green이 소성과정 속에서 조화 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색상은 자연에선 자연적인 색상으로 존재하지만 작품제작에 바탕이 된 인체의 골격 색과는 상이함을 보이며 실제와의 거리를 멀게 만든다.



[작품 4] <인식의 시작>

130 x 130 x 1050mm, Stoneware, 2014

3. Head 연작

[작품 5] Head Ⅰ
[작품 6] Head Ⅱ
[작품 7] Head Ⅲ

1) 성형

[작품5,6,7]은 digital pigment printing[20]방식의 사진작업이다.
사진의 피사체가 된 작업은 석기 질 점토와 석고 틀을 이용 한 가압성형 방법으로 만들어졌고. 석고 틀은 실제 돼지머리를 캐스팅 하여 만들었다.

[도 11] 가압성형과정

석고 틀은 양 귀와 머리에 대한 틀로 나눠 3개의 틀로 제작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3개의 석고 틀에 점토를 눌러 성형을 하였다. 우선 점토를 판의 형태로 만든 후 틀에 맞게 잘라가며 가압해주었다. 성형된 머리와 귀는 접합부에 스크래치를 낸 후 소지의 슬립을 이용해 접합하였다.

20) digital pigment printing방식은 200년 이상 보존 가능한 진보된 방식으로. c-print 방식의 보존력보다 오랜 기간 동안 보존 가능한 방식이다.. http://www.mulasec.kr/print/print_introduction.html 참조

2) 소성

소성은 기본적으로 1, 2, 3차로 이루어졌고, 1차 소성은 1230℃ 2차 3차 소성은 1050℃~1250℃ 로 이루어졌다.

[표 4] 작품 5 소성데이터

[표 5] 작품 6, 7 소성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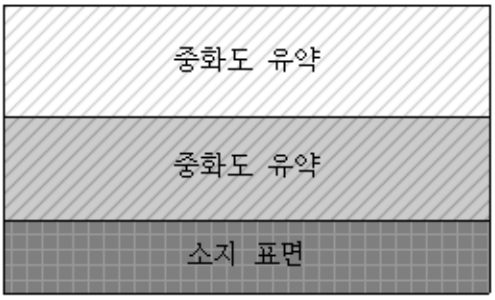
3) 유약 및 시유방법

[작품5]에 흑 매트 유약, terra sigillate(ball clay에 yellow stain 10%첨가)와 frit가 [작품6], [작품7]에 duncan과laguna사의 중화도 유약이 사용되었다. 중화도 유약의 시유는 붓을 이용한 드리핑과 일반적인 페인팅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차 소성 후	2차 소성 후	3차 소성 후
작품 5	흑매트유 스프레이 분사	terra sigillata, frit 붓으로 채색	
작품 6	duncan, laguna 붓으로 채색	duncan, laguna 붓으로 채색	duncan, laguna 붓으로 채색
작품 7	duncan, laguna 붓으로 채색	duncan, laguna 붓으로 채색	duncan, laguna 붓으로 채색

[표 6] 작품 5, 6, 7 유약 및 시유방법

[표 7] 작품 5 시유 층



[표 8] 작품 6, 7 시유 층

4) 작품해설

1970년대 말부터 뉴욕의 미술계에 등장한 소위 '모조주의(simulationism)'는 사진적 방법에 근거한 미술이다. 모조주의 자들은 롤랑바르트가 카피스트에 비유한 저자의 개념을[21] 미술에서 실천한 작가들이다. 그 중 다른 사진작가의 작품을 다시 찍는 셰리르빈은 원래가 복제품인 사진을 또 복제함으로써 원본성의 신화를 내부로부터 해체한다.[22]

<Head>의 제작방법에는 가압성형과 사진기법이 사용되었다. 이 두 가지 모두 '찍다'와'복제'라는 의미를 지닌다. 아무리 정교하게 이루어진 복제라도 복제품은 본질적으로 'original'이 될 수 없다. 제작과정에서 실제돼지머리는 연속된 복제의 과정을 거쳐 원본성과 멀어진다.

<Head>는 본 전시'돼지가 웃는 날'에서 잔인성과 전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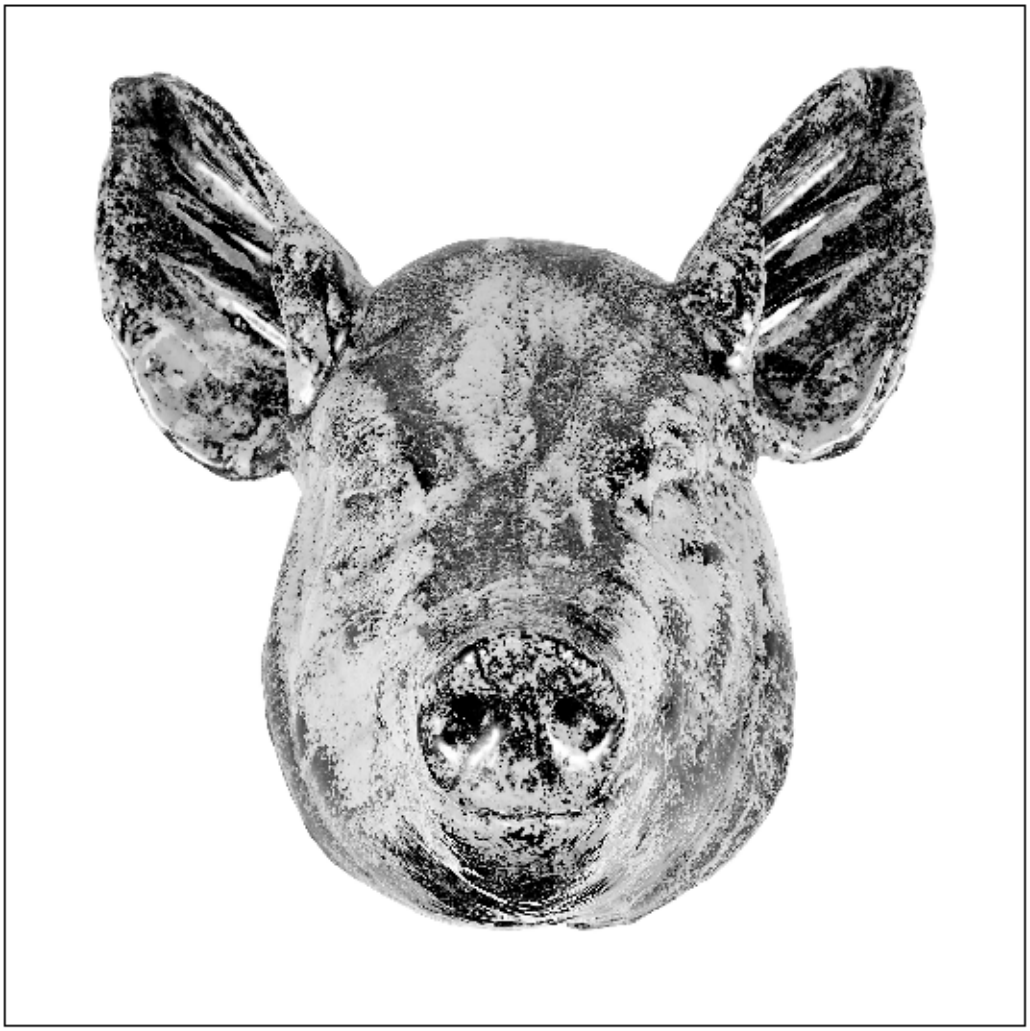
주로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돼지 머리는 죽은 후 교정을 통해 웃는 형상을 갖게 된다. 전시공간에서 실제(피사체)가 사라진 <Head> 작품들은 사진으로 출력되어 전시되었다. 불에서 구워 나온 유약의 강하고, 화려한 색채는 소성과정에서 색들이 융화되어 그 자체로서 다른 재료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본 전시를 구성 하는 작업들은 하나같이 연구자가 만든 장치 속에 포장되어진다. 그러나 작품<Head>는 다른 작업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품제작을 위해 연구자가 돼지머리를 구입 했을 때 이미 다른 작업자의 손을 거쳐 포장이 된 상태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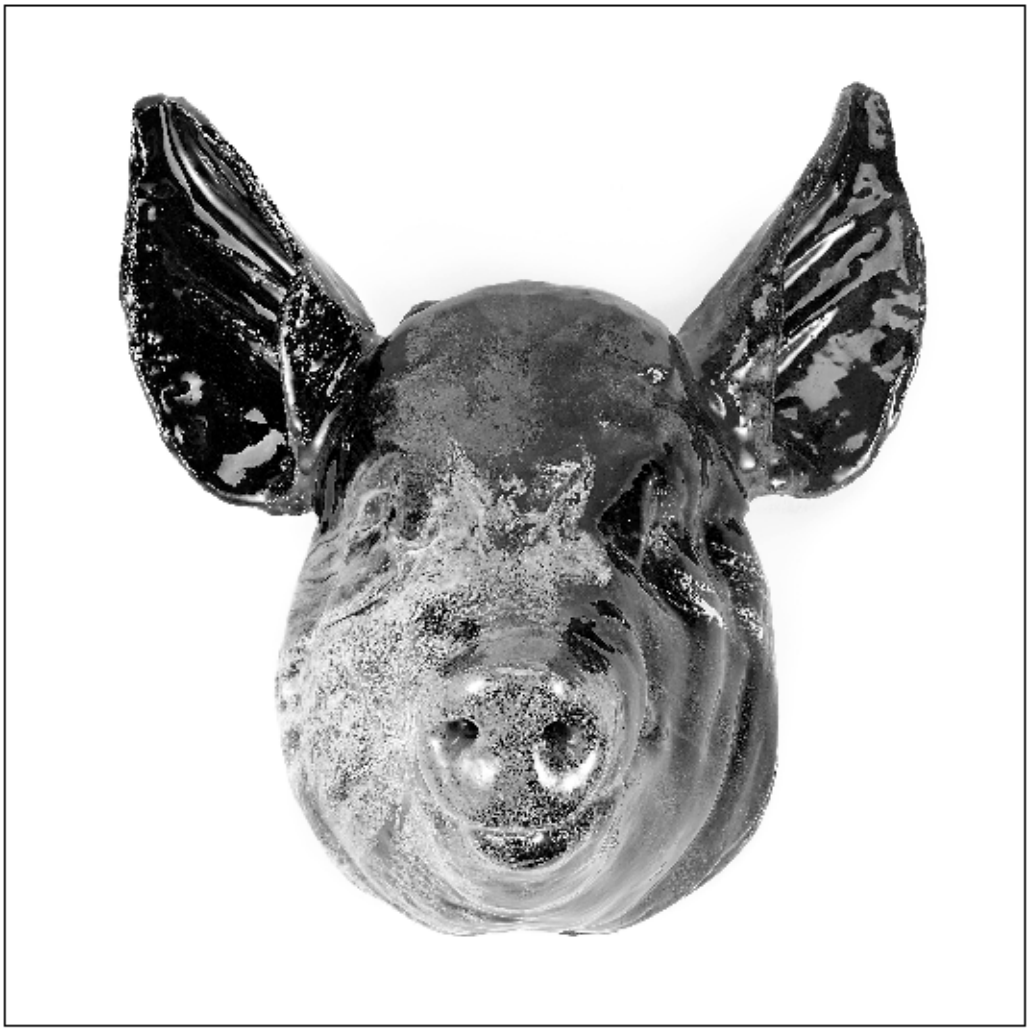
21) 바르트는'저자'를 플로베르의 미완성 소설에 나오는 카피스트들인 부바르(Bouvard)와 페키쉐(Pecuchet)에 비유한다 Barthes(1968),146.

22) 윤난지. (2000). "현대미술의 풍경". 예경. pp. 37-43.



[작품 5] <Head Ⅰ>, 762 x 762mm,
pigment print on mounted plexiglass in artist's- frame, 2014

[작품 6] <Head Ⅱ>, 762 x 762mm,
pigment print on mounted plexiglass in artist's- frame, 2014



[작품 7] <HeadⅢ>, 762 x 762mm,
pigment print on mounted plexiglass in artist's- frame, 2014

4. 해체된 돼지

[작품 8] 해체된 돼지

제작과정은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스티로폼조각과정과 FRP(fiber reinforced plastics)작업, 그리고 그 원형 위에 세라믹 타일을 붙이는 과정이다. 또한 작품이 설치될 스탠드의 제작과정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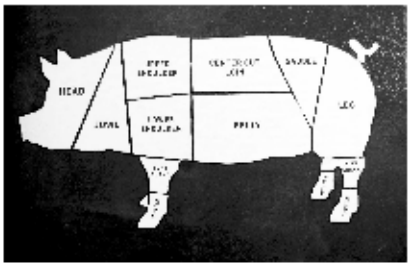
1) 스티로폼 조각

[도 12] 스티로폼 조각과정

크기가 큰 원형작업을 할 땐 점토를 이용한 모델링 방법보다 스티로폼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점토는 수축과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시간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무게 등을 고려해 작업에 적합한 소재로 스티로폼을 선택하였다.

박스형 스티로폼을 접합해 조각에 사용될 기본덩어리를 제작했다. 접합 시 우레탄폼과 스티로폼 본드를 이용하였다. 스티로폼 절단을 위해 열선과 열선

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변압기를 사용하였다. 열선을 이용해 자르고 붙이는 작업과정을 반복하며 형태를 잡았다. 대략적인 형태가 만들어진 후 커터 칼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묘사해주었다. 그 다음 사포를 이용해 표면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마감해준다. 만들어진 돼지를 다시 부위별로 잘라주었다. 이때 잘리는 부위는 도축과 관련된 서적을 참고하였다. 총 12조각으로 잘라 준 후 돼지의 표피부분을 제외한 잘려진 단면에 대한 묘사를 해 나갔다. 방법은 사포와 조각칼을 이용한 앞선 방법과 동일하다.



[도 13] 돼지부위별 분류

2) 석고 및 FRP(fiber reinforced plastics)작업

석고작업을 하기 전 이탈제의 용도로 바닥용 유성왁스(p600-poliwax)를 스티로폼에 발라주었다. 석고는 점도가 있어 스티로폼 표면에 발랐을 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상태로 만들어 사용 하였다. 일정한 두께를 가지지 않는 틀은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전체적인 두께를 1cm정도로 형성시켰다.

경화가 이뤄진 석고 틀은 분리하며 안에 있는 스티로폼을 제거해 주었다. 그 다음 석고 틀은 사포를 이용해 표면을 다듬어 정리하였다. 손질 후 석고표면에 이탈제(왁스)를 발라주었다. 왁스칠은 수지 작업 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수지와 석고 틀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

[도 14] FRP작업

일반적으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FRP라고 하지만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과 구별할 때는 GF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라고도 한다. 불포화 폴리에스터에 지름 0.1㎜ 이하로 가공한 유리섬유를 보강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외부 충격에 강하고 장력강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23]

fiber glass도 그 종류가 다양하며 본 작업에 사용된 섬유는 촙스트랜드매트

23)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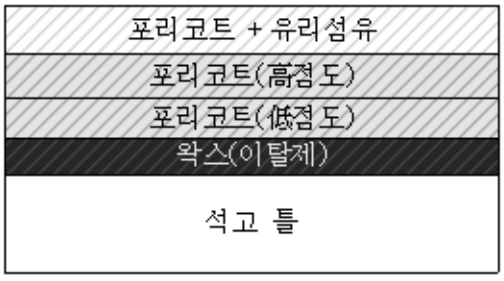
(chopped-strand mat)이다. 차량부품, 선박, 욕조, 대구경 파이프, 물탱크, 화학탱크 제조 시에도 사용된다. 우수한 함침성(수지침투율)을 가지고 있어 붓을 이용 하여 수지에 충분히 적셔주면 뻣뻣한 상태에서 부드러운 상태로 바뀌게 되며 곡면성형이 가능해진다.

기계적 특성	강철보다 비인장 강도가 크다.
전기적 특성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다.
불연성	불에 타지 않으며 유해물질 방출이 없다.
치수 안정성	열팽창계수가 낮아 온도, 습도에 따른 치수 변형이 작다.
내화학성	강한 내화학성을 가지고있다.

[표 9] fiber glass 특성

포리코트는 경화제를 혼합해야 경화가 진행되는 열경화성수지로 talc를 같이 사용해 그 점도를 조절하여 사용한다.

몇 차례에 걸쳐 석고 틀에 수지를 발라 두께를 형성하였다. 처음 바르는 수지의 경우 talc를 소량 첨가하여 붓을 이용해 얇게 발랐다. 두 번째 수지엔 talc량을 조금 더 늘려 발랐을 때 수지가 벽면에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상태로 만들었다. 세 번째 두께는 유리섬유를 수지에 적셔 얹어주며 형성하였다. 틀과 틀은 접합부에 점도를 높인 수지를 이용하여 접합시켰다.



[표 10] FRP작업 단면도

수지의 완전 경화가 이루어진 후 수지를 감싸고 있는 석고 틀을 제거했다. 이때 경화시간은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비율과 건조온도에 따라 달라지며 고온에서 보다 빠른 경화가 이루어진다. 틀에서 수지를 분리한 후 표면에 남아있는 왁스를 제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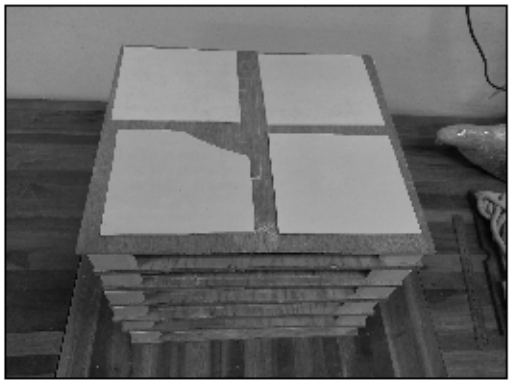
3) 타일작업

곡면으로 이뤄진 FRP몸체에 타일을 밀도 있게 점착시키기 위해서는 두께가 얇은 타일을 필요로 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타일로는 그 조건을 채울 수 없어 백자 소지를 이용해 타일을 제작했다. 사용된 소지는 dl백자로 유약의 발색이 선명하며 불순물이 적어 절단 시 다른 소지에 비해 깨끗한 면을 얻을 수 있

다.

도판기를 이용하여 두께 3~4mm의 점토판을 만들었다.

타일제작에 사용된 유약은 Laguna사의 중화도 유약으로 red, yellow, pink, maroon, white, black 의 6가지 색을 혼합해 실제 돼지가 가진 색채와 유사한 30가지 색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도 15] 도판건조과정

[도 16] 소성된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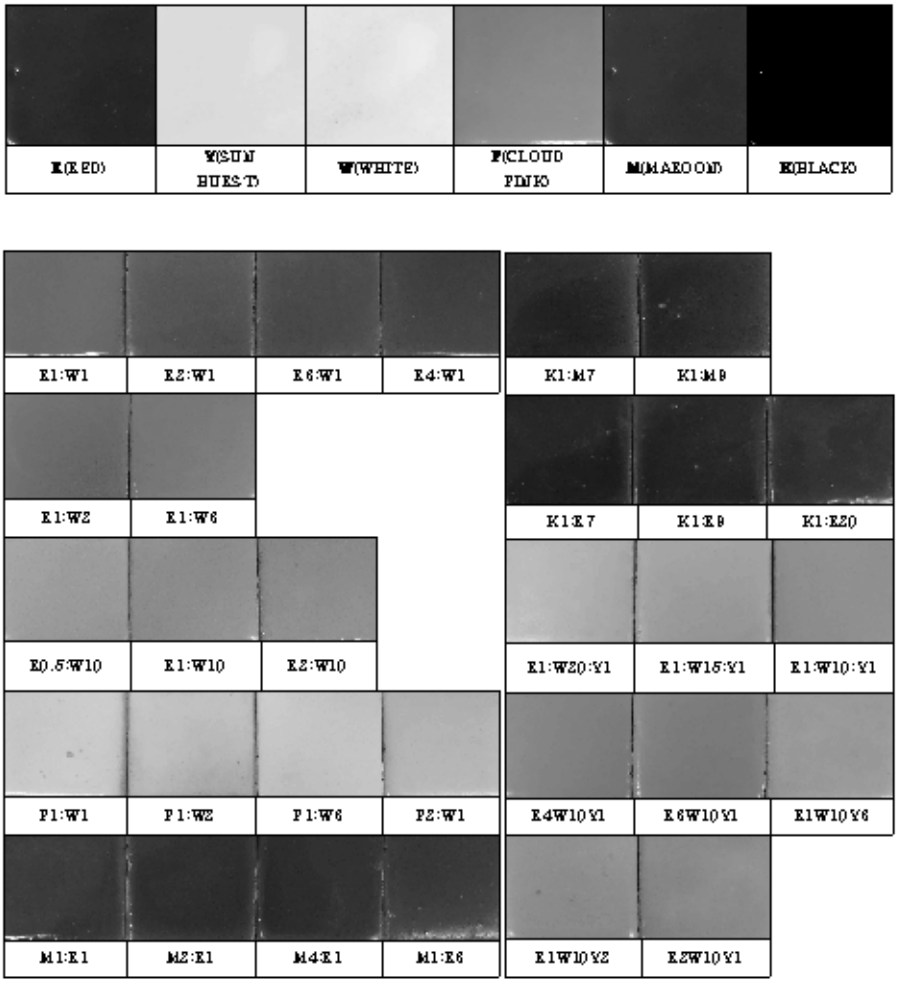
[도 17] 분류된 타일

[도 18] 분류된 타일2

타일은 유리면에 유리칼과 타일 뒷면에 커터 칼을 이용하여 재단하였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빗금을 그은 후 타일을 자를 때 사용되는 공구를 이용해 절단했다. 다른 방법으론 불규칙적으로 타일을 깨뜨리는 것으로 타일에 망치와 같은 도구로 힘을 가하여 깨트리는 방법이다. 압력을 가했을 때 타일이 분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일 뒷면에 접착성이 있는 테이프를 붙여주었고 힘을 가하는 도구 또한 머리가 고무재질로 된 망치를 이용해 타일이 으스러지는 것을 방지했다. 타일부착 시엔 점착성이 있는 석재용 에폭시를 사용하였다.

소성은 1차에서 800~900℃로 소성 하였고, 2차 소성 시엔 중화도 유약을 사용해 1020~1050℃로 소성하였다.

[표 11] 작품 8 소성데이터



[표 12] 기본 6색과 혼합하여 만든 30색

4) 스탠드제작

스탠드는 이동과 설치를 고려해 조립과 분해가 가능하도록 제작 하였다. 설치된 스탠드의 규격은 2260 x 850 x 2300mm이다. 천 정부엔 매립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 한 빛의 반사에 의한 조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택처리가 된 스테인리스관재를 사용하였다. 설치 시 기둥프레임과 바닥프레임이 눈에 띄지 않도록 광이 나지 않는 검정색 락카계열의 페인트를 사용하였다.

5) 작품해설

<해체된 돼지>는 식 문화의 풍경 속 육식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작품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시대의 식 문화에서 해체된 동물의 살 조각들을 보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폭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잔인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본 작업은'익숙해진 육식주의 풍경 속에 우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작품 <해체된 돼지>는 '설치'의 특성을 포함한다. '설치'라는 용어는 원래'전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간 전체를 조형화 하는 특수한 전시의 방법을 지칭하게 되었다. 현대미술에서 작품의 전시 방법이 평면을 벽에 거는 것에서 입체를 공간에 제시하는 것으로, 그리고 환경을 형성하는 것으로 확장되면서 설치는 마지막의 방법을 일컫는 특정한 용어가 된 것이다.[24]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일반화 되면서 설치 미술의 급증이 뚜렷한 증후로 나타나게 되었다. 국제적인 비엔날레만 보더라도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에 불과한 것은 설치의 방법 속에 이 시대미술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연구자가 설치미술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모든 장르, 양식, 매체가 한 공간에서 만나는 설치는 무엇보다도 단일성과 통일성이라는 모더니즘 신화를 벗어나려는'다원주의(pluralism)'를 실천하기에 적합한 도구인 것이다. 모더니즘 이후 현대 미술에서 보이고 있는 다원주의적 현상에 대하여 평론가들은 각 양식상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갖는다. 단지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해 보면 다

24) 윤난지. (2000). "현대미술의 풍경". 예경. pp. 80-81.

양한 양식의 공존 또는 통합현상과 대중문화와의 결합시도를 꼽을 수 있다. 그 예로 조각 또는 입체작품의 미술운동이 활발했던 1960~70년대에 비하면 1980년대 이후의 미술에서는 회화가 조각과 결합되거나 서로간의 경계가 없어진 새로운 형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회화에서 새로운 형태란 오브제나 입체물이 화면에 첨가되어 캠퍼스 위주의 평면작업에만 집착하던 고전적인 회화방식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뜻한다. 조각의 작업에서도 표면 효과의 강조와 색채의 사용 등으로 2차원적 요소가 강조되는 형태의 작품이 많아지고 있어 두 영역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25]

<해체된 돼지>는 12조각으로 잘려진 돼지 한 마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 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각 개체의 표면은 'mosaic'라는 장치로 감추어지고 포장된다. 작품 속에서 'mosaic'는 심미적 역할로서'mosaic tile'과 특정 부위를 잘 안 보이게 처리 하는 일을 일컫는 'mosaic'의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타일의 어원이 바닥·벽·지붕 등을 덮는 널판 모양의 재료를 뜻하는 라틴어인 tegula(덮개)라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이 둘은 '덮다'라는 한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잔인성'은 'mosaic'라는 장치로 감춰지고 포장되는가 싶지만 연구자에게 포장하는 작업은 문제를 제기하고 드러내는 과정이다. 또한 관람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25) 이계영. (1996). "현대미술의 다원주의적 경향과 통합예술적 관점에 의한 환경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p. 5.

[도 19] <해체된 돼지> 설치장면

[작품 8] <해체된 돼지>, variable size,
mixed media, 2014

5. Dis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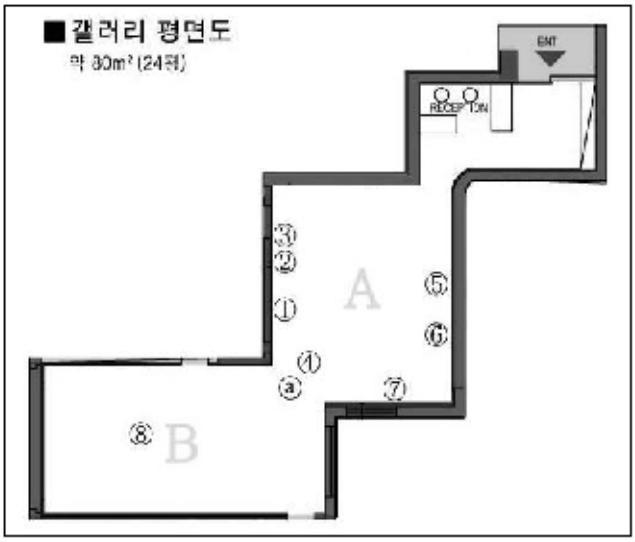
본 연구자의 작품은 설치미술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전시 공간의 선정 또한 작품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히 이루어졌다. 전시공간의 선정에서 우선시 한 것은 공간의 높이와 무게가 있는 물체를 천정에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 다음으로 분리된 공간이였다.

[도 20] 갤러리 평면도

[도 21] space A

[도 22] space B

선택된 갤러리의 공간은 multi-room을 포함하여 3개로 분리되어 있었다.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는 3350mm이였다. 본 전시에 사용된 공간은 space A, B로 천정은 금속으로 되어있어 작품설치 시 자석을 이용하여 작품을 공중에 설치할 수 있었다.



①②③ <말 안 듣는 동물들을 위한 도구세트Ⅱ,Ⅲ,Ⅳ>

④ <인식의 시작>

⑤⑥⑦ <Head Ⅰ,Ⅱ,Ⅲ>

⑧ <해체된 돼지>

ⓐ <블라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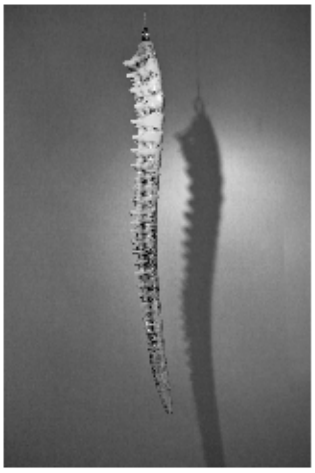
[도 23] 설치계획

작품은 두 공간으로 분류해 설치하였다. 도축과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①, ②, ③과 작품 ④, 실체를 대신한 Head사진작업 ⑤, ⑥, ⑦은 space A에 설치하였다. 해체된 돼지⑧은 space B에 설치하였다.

space A와 B는 상대적으로 밝고 어두운 곳으로 분류되며 space B는 조명을 켜지 않아도 space A와의 연결 구간을 통해 빛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빛을 차단하였다. 이와 같이 공간을 분류한 이유는 작품⑧의 특성상(작품 표면이 빛의 반사를 만드는 유리질의 타일로 덮여 있다) 자체적으로 설치한 조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변을 어둡게 해야만 했었다. 이에 공간 B또한 조명을 최대한 아래로 설치해 작품과의 거리를 좁혀 조명이 전시장 전체로 분산되는 것을 감소시켰다.

관람자들은 입구를 통해 들어와 space A에서 여러 장치들로 미화된 작품들과 마주하게 된다. space B는 어둡게 조명되어있는데 이는 작품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한 이유임과 동시에 시스템의 비가시성을 의미한다.

[도 24] space A 전시전경1



[도 25] space A
전시전경2

[도 26] space A 전시전경3

[도 27] space B 전시전경

Ⅳ. 결 론

현대미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방식의 체계나 분류법은 무너지고 새로운 기술이 시각 예술을 개념화하고 생산한다. 이미 확립된 예술 형식들은 새롭게 해석되며,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통해 다 문화적인 풍부함이 길러진다. 이와 같은 역동적인 측면과 더불어 현대미술에서 작품의 내용은 그 의미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사건과 사회적 이슈, 과학, 기술, 매스미디어, 대중문화, 문학, 도시환경, 자본의 움직임, 사상의 흐름 등의 요인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작가를 자극하고 작품에 소재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현대의 육식문화 속에서 잔인성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한 작품연구이다. 따라 '육류산업의 전반에 나타난 잔인성'과 육류산업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화 과정'을 모티브(motive)로 하여'현대축산시스템의 잔인성'을 시각적 언어인 '조형화 작업'을 통해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잔인성'을 표현함에 있어 다음의 연구자가 만든 '포장'이란 장치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첫째, 언어를 통해 잔인성을 미화 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전시의 제목'돼지가 웃는 날'과 전시를 구성하는 작품의 제목을 듣기 좋게 설정하였다. 수신자들이 'Text'와 작품간 발견되는 모순 속에서 발신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작품으로 존재하는 시각물과 'Text'의 관계 설정에 많은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약이 가진 색채를 통해 시각적 효과를 높이려 하였다. 도자예술에서 유약의 사용은 시각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주는 요소로 이는 색이 인간의 생리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리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고채도의 다양한 유약을 사용하였다. 유약은 '소성'이란 특별한 과정을 거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색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고온의 불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창조적 색상을 만들어 낸다. 연구자는 본 전시를 구성하는 작품들의 제작과정에서 이러한 유약을 사용함에 있어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작품의 형태와 유약의 색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표현하려 하였다.

셋째, 실체의 부재를 통해 거리를 만들려고 하였다. <Head>의 제작에는 casting기법과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다. 이 두 방법 모두 원본에 대한 복제로 이루어지는데 잘려진 돼지머리는 연속된 복제의 과정 속에서 최초 대상이 가진 잔인성은 점차 훼손 된다. 본 전시에서는 두 번의 복제를 통해 얻어진 결과인 출력물을 피사체를 대신해 전시함으로 관람자와 거리를 조절 하려고 하

였다.

넷째, 모자이크를 통해 잔인성이 결여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해체된 돼지>는 'mosaic'라는 장치로 포장된다. 본 연구에서 'mosaic' 는 심미적 역할로서'mosaic tile'과 영상이나 사진작업에서 특정부위를 잘 안 보이게 처리 하는 것을 일컫는 'mosaic'의 개념으로 존재하지만 타일의 어원이 바닥 ·벽 ·지붕 등을 덮는 널판 모양의 재료를 뜻하는 라틴어인 tegula(덮개)란 것을 감안한다면 이 둘은'덮다'라는 한 가지의 의미로 통하며 이러한 의미로 'mosaic'를 통해 대상을 미화시키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을 미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라 개념 짓고 있다. 이미 각종 미디어를 통해 폭력과 잔인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시대의 사람들은 웬만한 자극을 통해서는 어떠한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엔 정육점에 걸려있는 동물들의 주검조차 일상적인 풍경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포장을 하지 않고 비쳐지는 현재의 육식풍경을 통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며 그 잔인성 또한 느낄 수 없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는 인간의 식 재료로 쓰여지는 대상을 동물의 주검이라는 설정 하에 반어점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장식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여 들여다보기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함에 있어 포스트모더니즘의 담론을 가져옴으로 작품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특히 단순히 포장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Head>시리즈는 모조주의와 관련해 사진이 갖는 의미와 작품의 원본성에 관해 한층 더 깊고 풍부한 내용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현대 축산 시스템의 잔인성을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와 같은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해 냈다.

이처럼 실질적인 결과물을 통해 향후 연구자의 작업에서 '잔인성'과'포장'이란 개념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고찰해보았고 매체가 가진 특성을 살려 적절히 혼합해 사용하는 것은 단일 매체가 지닌 한계성을 뛰어 넘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기에 적절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더불어 본 연구자는 현대 미술을 하는데 있어 그 변화를 인지하며 현시대의 풍경을 끊임없이 관찰하겠다. 또한 기존 미술의 답습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인 언어를 만들려는 자세와 논리로 현대미술의 본질적 속성에 근접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1] 로버트 S. 넬슨. 리처드 시프. (2006). "새로운 미술사를 위한 비평용어 31". (신방흥 역). 아트북스.

[2] 리처드 W.불리엣. (2008). "사육과육식". (임옥희 역). 알마.

[3] 멜라니 조이. (2011).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노순옥 역). 모멘토.

[4] 심은록. (2013).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10". 아트북스.

[5] 윤난지. (2000). "현대미술의 풍경". 예경.

[6] 윤난지 엮음. (2007).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눈빛.

[7] 정혜경외. (2013). "식생활 문화". 교문사.

[8] 제레미 리프킨. (2002). "육식의 종말". (신형승 역). 시공사.

[9] 진 로버트슨. 크레이그 맥다니엘. (2011). "테마 현대미술노트". (문혜진 역). 두성북스.

[10] 최훈. (2012)."철학자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진 이유". 사월의 책.

[11] 콜린 캠벨·토마스 캠벨. (2010). "건강·음식·질병에 관한 오해와 진실". (유자화 역). 열린과학.

[12] 피터 싱어. (2012)."동물해방". (김성한 역). 연암서가.

[13] 홍명희. (2005)."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

[14] Ryan Farr with Brigit Binns. (2011). "Whole Beast Butchery". Chronicle Books. San Francisco.

학위논문

[15] 김윤영. (2012). "데미안 허스트의 약 시리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16] 김하민. (2013). "음식의 윤리적인 의미 연구-육식·채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17] 이계영. (1996). "현대미술의 다원주의적 경향과 통합예술적 관점에 의한 환경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웹사이트

[18] 농민신문. http://www.nongmin.com

[19] 네오룩. http://www.neolook.com/

[20] 네이버 매거진.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
[21] 두산갤러리. http://www.doosangallery.com/
[22]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23] 데일리벳. http://www.dailyvet.co.kr/news/
[24] 아라리오갤러리. http://www.arariobeijing.com/
[25] http://www.damienhirst.com/

Abstract

A Study on Formative Ceramic Art Motivated by the Cruelty of the Contemporary Livestock Systemstudy

Jeong, Dong Jin
(Supervisor Lee, Jung Suk)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alization industrialized everything. Animal husbandry is no exception. Industrialization, which put efficiency and speed as its first virtue, transformed the husbandry into an industry. The transformation was solely for humankind and drove other animals' existence into narrow hutches. The contemporary process of meat production,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 (CAFO), regards animals as disposable and insensible resources. This extremely people-oriented process caused many side effects such as animal abuse and infectious diseases.

This study notice the cruelty of the contemporary livestock system and share the understanding on the system. First, this researcher shows the process of breeding and butchering of livestock with its cruelty, and also the motions for justifying the process. This reveals a side of modern society, and provides a good understanding of bystanders to the cruelty.

Next, the researcher studied works of contemporary artists on this subject. The study surveyed how formativeness and symbolism are expressed in their works and tried to find common traits from their similarity.

Motivated by the cruelty of contemporary livestock system, the researcher created three dimensional artworks representing the subject. During the representation, the researcher avoided using media as conventional works did by mixing and recombining them. It is difficult for people to know the cruel truth of the meat eating culture because the process of transforming animals

into products is fully hidden by packaging. Likewise, the researcher packaged the cruelty with researcher's tools like 'language', 'glaze color' 'absence of existence' and 'mosaic'.

This study gives a chance of reconsidering what meanings the two concepts, 'cruelty' and 'packaging', can have. Also, the experience of exploit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properly signposted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er's future works. The researcher will continue recognizing the constant changes of present age. This will provide creative and realistic attitudes, and also will help to access the essentials of contemporary arts.